

유통·식품 CEO

“글로벌 사업 가속화 브랜드·콘텐츠 강화”

유통업계가 2018년 무술년(戊戌年) 경영 키워드로 글로벌 사업 가속화 및 브랜드·콘텐츠 강화를 제시했다. 이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 경기침체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업계가 확실한 경영환경을 개선을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고객의 삶에 가치를 더하고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그는 “사회 트렌드와 가치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워라밸(work-life balance)’, ‘올로(YOLO)’ 등을 언급하며 “변화의 흐름을 빠르게 읽어내고 예상을 뛰어넘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만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자”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 첨단 ICT 기술을 모든 사업 프로세스에 적용해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전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사진)은 임직원들에게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 개발을 당부했다. 정 부회장은 “기존과 같은 성장 방식은 앞으로 통하지 않는다”며 “세상에 없는 일류기업이 되어야 하고,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로 그것이 가능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야말로 경쟁사와 근본적으로 차별화하고 고객들과의 공감대를 통해 고객이 우리를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라며 “상품, 점포, 브랜드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콘텐츠를 다양한 스토리로 연결해 고객의 니즈에 맞춰 재편집해 낼 수 있는 역량을 새로운 핵심 경쟁력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사진)은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변화를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변화와 혁신을 실행하는 것은 사람이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조직문화”라며 ‘사람과 조직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사업구조 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책임경영체계 구축 ▲조직문화 개선 등의 3대 경영 방침도 제시했다. 정 회장은 “기존의 불필요한 룰(Rule)과 관행을 없애고 의지만 앞세우는 형식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사업구조를 개혁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제품과 서비스, 마케팅 등에서 차별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역량과 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기존 사업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CJ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사진)은 국내 사업에서의 압도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통해 성장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어려운 사업환경 속에서도 2020년 매출 100조원을 실현하는 ‘그레이트 CJ’ 완성의 기반이 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손 회장은 “‘그레이트 CJ’는 ‘월드베스트 CJ’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최종 목표를 향해 함께 전진하자고 말했다. ‘월드베스트 CJ’는 2030년까지 세 개 이상의 사업에서 세계 1등이 되고, 모든 사업에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CJ그룹의 비전이다. 이를 위해 CJ그룹은 올해 ▲그룹 사업 전반의 획기적 성장 지속 ▲사업부문별 독보적 1등 지위 확보 ▲‘온리원(OnlyOne)’, ‘일류인재·일류문화’, ‘공유가치창출(CSV)’로 대표되는 ‘CJ경영철학’을 심화해나갈 예정이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사진)은 새해 경영방침을 ‘즉시 결행’으로 정했다. 서 회장은 “세계를 놀라게 할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하고 고객을 기쁘게 하는 고객경험을 선사하며 확고한 디지털 인프라와 역량으로 디지털 시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각자가 할 수 있는 일 중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구체적으로 즉시 결행하자”고 강조했다.



올해 아모레퍼시픽그룹은 ▲혁신상품 개발 ▲고객경험 강화 ▲디지털 혁신 ▲글로벌 확산 ▲미래경영 준비, ▲지속가능경영 및 인재육성 등 6개 중점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경영 목표와 비전 달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사진)은 “2018년은 중국경제 성장 둔화, 국내경기 불확실성, 보호무역주의 등 산재한 변수들로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시아 대표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금까지 이룬 것에 자만하지 않는 반구십리(半九十里)의 자세로 힘찬 여정을 함께 시작하자”고 말했다. LG생활건강은 올해 ▲국내를 뛰어넘는 아시아 대표기업으로 발돋움 ▲사업리스크 선제적 대응 ▲제조 및 R&D 역량 혁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인용 기자 parki7854@

재계 무술년 화두 ‘혁신과 혁파’

2018년 무술년(戊戌年)을 맞아 주요 재계 총수들과 최고경영자(CEO)들이 내세운 올해 경영 키워드는 단연 ‘혁신과 혁파’다.

글로벌 무역환경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악화되고 있고, 미래 먹거리는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 융복합이 빠르게 진행되며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선 ‘변화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투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SK, LG, 한화 등 주요 기업들은 이날 시무식을 갖고, 임직원들에게 대내외적인 위기요인들을 환기하고, 위기 속 도약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초심으로 돌아가 새롭게 도전

총수 부재 상태로 새해를 맞이한 삼성전자는 이날 CEO 중 가장 연장자인 김기남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장(사진)이 신년사를 통해 “초심으로 돌아가 새롭게 변화하고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올해 세계 경제는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 커지는 상황”이라며 ▲미래를 창조하는 초일류 기술 회사 ▲지속 성장 가능한 조직문화 창출 ▲고객과 사회로부터 사랑받는 회사 등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 김 사장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 문화의 정착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기술력 확보, 유연하고 벽이 없는 조직문화

구축, 출신수범과 배려로 초일류회사에 맞는 매너 함양, 국내외 산업 생태계와 상생을 통한 공동체 기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주하지 말고 新비즈니스모델을

최태원 SK 회장(사진)은 지난 20년간 그룹 이익이 200배 성장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올드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개선하는 수준에 안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SK는 미래 생존을 위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함께 창출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더블 바텀 라인(Double Bottom Line)’, 자산을 공유하거나 변화를 주는 ‘공유인프라’, 해외라는 기존과 다른 시장을 공략하는 ‘글로벌 경영’ 등 구체적인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정관념 버리고 과감한 혁신

구본준 LG 부회장(사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변화를 기회를 만들기 위한 과감한 혁신을 주문했다. 구 부회장은 “기회를 우리 것으로 만들려면 변화의 흐름을 통찰하고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익숙했던 기존 고정 관념을 과감히 버려 사업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철저히 우리의 사업 구조를 고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류한화 위한 체질개선 나서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사진) “전사적인 혁신으로 ‘일류한화’의 미래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체질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고 투자를 축소하는 소극적인 내실화가 아니라 사업구조 선진화부터 제품과 기술개발, 일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구체적 변화와 성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장동력 사업 시장 선점해야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사진)은 “일하는 방식에서부터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는 일까지 디지털 전환을 통한 혁신적 시도가 있어야 한다”면서 “기존 사업에서는 경쟁사에 앞서 새로운 시장과 고객을 개척하고, 신성장동력 사업들은 사업화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이통사, 5G 상용화·조직문화 혁신 강조

“5G(5세대 이동통신)를 선점하라.”

이동통신사 최고경영자(CEO)들이 5G 상용화를 앞두고 올해 조직문화 혁신 등의 변화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지난해 2월 미디어, 스마트에너지, 금융거래, 기업·공공가치 향상, 재난·안전·보안 5대 플랫폼을 육성하겠다고 나선 황창규 KT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5G 상용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이동통신 사업을 기반으로 5G, 사물인터넷(IoT) 등을 고도화해 ‘글로벌 플랫폼 선두기업’으로 탈바꿈해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겠다는 선언이다.

황창규 회장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올해 2월 평창에서 세계 최초 5G 시범서비스 성공을 발판으로 5G 상용화를 본격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황 회장은 “그룹사마다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2018년은 ‘결정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 5G 시범서비스 성공을 발판으로 5G 상용화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2018년 평창 5G 성공을 바탕으로 5G 상용화의 주도권을 확실히 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인 AI, 블록체인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드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18년 KT그룹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있지만 수많은 한계를 돌파한 6만여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플러스 부회장

구성원들과 더불어 성공하고 성장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 컬러TV 위성중계 후 일본이 전자산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던 것을 예로 들며 “KT가 평창에서 ICT 역량과 5G 리더십을 보여준다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글로벌 플랫폼 선두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쟁사의 도전이 거센 미디어 플랫폼에서는 확실한 혁신이 필요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금융거래 플랫폼에서는 차별화된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국민기업’ KT의 역할도 강조했다. 황창규 회장은 “국민이 편안한 삶을 누리도록 환경, 안전, 건강 등에서 당면과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함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한편 협력기업의 성장에 더욱 관



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권영수 LG플러스 부회장은 이날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일등 기업문화를 구축하겠다고 역설했다.

권 부회장은 시무식에서 “LG플러스 조직문화 혁신의 지향점은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효율적 근무환경 마련과 일·가정의 양립 그리고 회사 안팎으로 긍정·감동이 넘치는 분위기 조성에 있다”며 “조직문화 5대 과제를 적극 실천해 일등 기업문화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비전을 반드시 달성하자”고 조직문화 혁신 5개안을 제시했다.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보고서 양식 등을 최소화한다. 회식자리도 없앤다.

권 부회장이 제시한 혁신문화 5개안은 ▲수평적 호칭체계로 상호소통 증진 ▲형식보다 핵심에 집중하는 보고문화 ▲매일 감사가 넘치는 긍정문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나눔문화 ▲일과 가정의 균형 발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회식문화 개선 활동 등이다. /*김나연 기자 silkni@